"산업보건 개척자, 조규상 회장의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글·사진 최문선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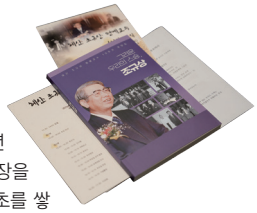
5월 11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컨벤션홀에서 해산 故 조규상 명예회장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그리운 우리의 스승, 조규상

조규상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은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열렸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규상 회장의 업적과 높은 뜻을 기렸다. 이후 추모사 낭독, 추모 영상 상영, 추모집 헌정 등의 시간이 이어졌다. 가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센터,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은 조규상 회장의 업적과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공로 등을 담은 추모집 '그리운 우리의 스승, 조규상'을 발간했다.

추모집은 조규상 회장의 초년기 삶,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서의 보직활동, 대한산업보건협회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선구자로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살아온 그의 삶을 조명하고 소외당하던 노동자들에게 헌신했던 조규상 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담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날 추모식에서 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조규상 회장의 유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회장 시절 집무실에 두고 보던 감사패·기념패, 신학대전 번역 자필 원고, 말년 사진 등이다.



월간 산업보건 발간 주도

조규상 회장은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년간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기초를 쌓았다. 40년 가까이 발행되고 있는 월간 산업보건 창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월간 산업보건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와 작업환경관리 지도·계몽하기 위해 1984년부터 발간되고 있다.